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및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 and
Maternal Parenting Variables on Parenting Efficacy

하지영(Ji-Young Ha)¹⁾

서소정(So-Jung Seo)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ich variables predicted parenting efficacy. The variables of interest were demographic variables regarding both the infants and mothers, infant temperament and development,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belief, and parenting stress. The subjects consisted of 260 infants and mothers. Data on infant's temperament,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belie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were gathered through maternal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urthermore, infant development was assessed by classroom teacher.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Our results indicated that infant's sociability and activity, parenting knowledge about emotional development, parenting beliefs emphasizing the role of nature in infant development, low parenting stress all predicted parenting efficacy.

Key Words : 영아의 기질(infant development), 양육지식(parenting knowledge), 양육신념(parenting belief),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I. 서 론

최근 부모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

모의 신념이나 가치와 같은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양육 효능감은 부모의 인지와 행동을 매개하는 요소

¹⁾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학전공 박사수료

²⁾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Jung Seo, Child & Family Major, Kyung Hee University, 11-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E-mail : seosojun@khu.ac.kr

로서(Bandura, 1989), 양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trona & Troutman, 1986; Teti & Gelfand, 1991). 따라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혁준, 1999; 안지영, 2001). 양육효능감의 개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론에서 비롯되어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과업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 또는 견해로 정의될 수 있다(de Montigny & Lacharité, 2005).

양육효능감을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볼 때, 여기에는 적절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Bandura, 1989). 따라서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지식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걸음마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신감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Conrad, Gross, Fogg, & Ruchala, 1992), 특히 여러 가지 유형의 양육지식 가운데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이 양육효능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연숙·김영주, 2008; 이영환·오미연, 2006).

또한 자녀 발달과 양육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녀의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어머니에 비해 인성을 강조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연숙·김영주, 200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성인의 가치관을 전달하려는 행동주의적 교육신념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반면, 아동의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성숙주의 교육신념을 가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인옥·이경옥, 1999).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역할에 대해 고통을 지각할수록,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미, 2004; 서소정, 2004; 송연숙·김영주, 2008).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특성을 주로 다루었지만, 자녀의 특성 역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혁준, 2005). 예를 들어,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기질적으로 쉬운 아이, 또는 까다로운 아이로 보는가와 관련이 있는데, 자녀를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로 인식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utrona & Troutman, 1986; Mash & Johnston, 1983; Teti & Gelfand, 1991). 즉 까다로운 특성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행동이나 발달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잃기 쉽다(Coleman, Trent, Bryan, King, Rogers, & Nazir, 2002). Buss와 Plomin(1984)의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기질 차원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기질과 양육효능감 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4세에서 7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동의 정서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활동성과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문혁준, 2005),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보고되었다(Coleman & Karraker, 2000).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다른 영아의 특성으로 영아의 발달수준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Coleman과 Karraker(2003)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Bayley 인지발달 지수(MD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반응적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효능감을 길러주고 따라서 자녀의 발달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과 사회성 발달 간의 관련성을 밝혀내기도 하였다(Swick & Hassell, 1990). 일반적으로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로 자녀의 발달수준이 높으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영아나 어머니, 또는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양육효능감과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영아의 성별의 경우, 부모에게 있어서 남아와 여아를 양육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아의 성별에 따라 양육효능감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실제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그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안지영, 2001). 그러나 특정 영역의 양육효능감, 예를 들어 훈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에서는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다(문혁준, 2005). 자녀의 연령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Coleman & Karraker, 2000), 부모로서의 양육경험이 많아지고,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누적되며,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연숙·김영주, 2008). 한편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나 외동아에 비해 둘째 이상인 경우의 어머니가 양육효능감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경험이 증가하면서 양육

효능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문혁준, 2005; Gross, Rocissano, & Roncoli, 1989).

어머니 또는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육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과 관련하여, 나이가 많은 어머니들은 나이가 적은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을 양육하는데 효과적인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더 높을 수 있다(서소정, 2004; Conrad, Gross, Fogg, & Ruchala, 1992).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발달이나 효율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으며,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leman & Karraker, 2000).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데(전인옥·이경옥, 1999), 이는 수입이 높을 경우 효율적인 자녀양육을 방해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적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Coleman & Karraker, 2000). 한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문혁준, 2005),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이 더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는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므로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안지영, 2001).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지식이나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변인 외에도 영아의 기질이나 발달수준,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주로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들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영아의 기질이나 발달수준과 같은 영아의 특성은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양육 특성 변인 중에서도 한두 가지의 변인만을 선택하여 양육효능감과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양육 특성 변인을 모두 포함 시킴으로써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 관련 특성과 어머니 관련 특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걸음마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걸음마기가 되면 이전에 비해 움직임이 많아지고, 주변 탐색을 많이 하게 되며, 여러 가지 기술이 향상되므로 부모로서의 역할에 변화를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영아의 자율성과 마찰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Coleman, Trent, Bryan, King, Rogers, & Nazir, 2002).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는 시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양육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변인들을 알아봄으로써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본 연구대상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신념 및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신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요인 및 전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15~36개월의 영아 260명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 135명(51.9%), 여아 125명(48.1%)이었고, 월령은 15~18개월 23명(8.8%), 19~24개월 50명(19.2%), 25~30개월 82명(31.5%), 31~36개월 105명(40.4%)이었다. 영아의 출생순위는 첫째 및 외동아인 경우가 135명(51.9%), 둘째인 경우가 99명(38.1%), 셋째 이상 26명(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220명(84.6%)으로 가장 많았으며, 25~30세 25명(9.6%), 35세 이상 15명(5.8%)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68명(26.2%), 전문대학 졸업 76명(29.2%), 4년제 대학교 졸업 98명(37.7%), 대학원 이상 18명(6.9%)이었으며, 취업모가 161명(61.9%), 비취업모가 99명(38.1%)이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6명(17.7%),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30명(50.0%),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84명(32.3%)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60)

변인	범주	빈도(명)	백분율(%)	
영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아	135	51.9
		여아	125	48.1
	월령	15~18개월	23	8.8
		19~24개월	50	19.2
		25~30개월	82	31.5
		31~36개월	105	40.4
	출생순위	첫째 및 외동아	135	51.9
		둘째	99	38.1
		셋째 이상	26	10.0
	연령	25~30세	25	9.6
31~35세		220	84.6	
35세 이상		15	5.8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68	26.2	
	전문대학 졸업	76	29.2	
	4년제 대학교 졸업	98	37.7	
	대학원 이상	18	6.9	
취업유무	취업모	161	61.9	
	비취업모	99	38.1	
가정의 월수입	200만원 미만	46	17.7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30	50.0	
	400만원 이상	84	32.3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변인으로는 기질과 발달수준, 어머니 변인으로는 양육지식,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을 측정하였다.

1) 영아의 기질

영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Buss와 Plomin (1984)의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번안한 전수연(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원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가 낮은 정서성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Cronbach's $\alpha=.37$), 사회성(10문항)과 활동성(5문항)의 하위요인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문항

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기질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기질 신뢰도(Cronbach's α)는 사회성 .74, 활동성 .72로 나타났다.

2) 영아의 발달수준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발달진단도구인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_DEP」(장혜성·서소정·하지영, 2008)를 사용하였다.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는 0-36개월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진단하고, 장애위험군에 처한 영아를 조기선별 및 중재하기 위해 국

내에서 개발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선별진단도구로, 교사 또는 부모가 작성할 수 있다(장혜성·서소정·하지영, 2007). 검사지는 월령 단계별로 0-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의 총 8개 검사지로 구분되며, 각 검사지는 대근육 운동기술, 소근육 운동기술,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기본생활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원점수 산출방법은 수행한 문항점수를 모두 합산한 값이 영역 원점수가 되며, 전체 총점은 6개 영역 하위총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로 산출된다. 원점수는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의 월령은 15~36개월이므로, 대상 영아들의 현행 발달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13~18개월, 19~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용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최소 2개월 이상 대상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의해 자연스러운 일과(자유선택활동) 속에서 영아의 발달을 직접 관찰하여 검사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월령단계별(13~36개월)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대근육 운동기술 .68~.79, 소근육 운동기술 .73~.80, 의사소통 .87~.90, 사회정서 .52~.75, 인지 .75~.83, 기본생활 .58~.81, 총점 .93~.95이다.

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Larsen과 Juhasz(1986)의 KCDI(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번안한 윤형주(2002)의 척도를 바탕으로 아동학 전공 교수 1인과 대학원생 2인에 의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KCDI는 출생부터 3세까지 영아의 정서발달,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에 대한 지식을 측

정하는 도구로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형주(2002)가 사용한 54문항 가운데, 본 연구대상 영아들의 월령과 발달수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선별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네 개의 보기항목 중 하나의 답을 고르도록 되어 있으며, 옳은 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점, 옳지 않은 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과하여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에 대해 올바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는 정서발달(8문항), 인지발달(8문항), 신체발달(5문항), 사회성발달(9문항)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4) 어머니의 양육신념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이원영(1983)의 '자녀교육관', 김지신(1996)의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그리고 Segal(1985)의 'Maternal Beliefs and Values Q-sort' 등의 문항들을 참고로 안지영(2001)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양육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7점 척도로서 각 문항마다 양쪽에 상반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제시하여 어머니의 의견에 가까운 내용을 선택하고 가까운 정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양육신념의 제 1요인은 자녀 양육의 목표로서 '인성/지적성취 강조 신념'을 알아보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인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입장을 나타낸다. 제 2요인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성숙/환경주의 신념'을 알아보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숙주의에 가깝고,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주의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 신뢰도(Cronbach's α)는 인성/지적성취 강조 신념 .82, 성숙/환경주의 신념 .72로 나타났다.

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Abidin(1983)이 개발한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축소, 개정한 Abidin(1990)의 PSI/SF(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을 번안한 김현미(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Child)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각 하위요인마다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의 고통 .86,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91,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88,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ross와 Rocissano(1988)의 걸음마기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Toddler Care Questionnaire)를 번안한 이경하(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의사소통 능력(12문항), 교육(8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9문항), 발달지원(7문항)에 대한 효능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 총 36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양육효능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의사소통 능력 .90, 교육 .85,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82, 발달지원 .79, 전체 .9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아동학 전공 교수 1인과 영아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 유경험자이면서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전공자 2인으로부터 측정도구의 문항의 이해도와 적합성에 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연구대상 해당 월령의 영아 10명의 어머니와 교사에게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개별 접촉하여, 기관에 재원 중인 15~36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용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영아의 발달수준은 영아를 최소 2개월 이상 보육한 주교사가 측정하였으며, 교사 1명이 검사한 영아의 수는 1명부터 7명까지 다양했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어머니용 질문지는 281부, 교사용 영아발달 검사지는 298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가운데 어머니용 질문지와 교사용 검사지의 짝이 맞지 않는 경우, 영아가 연구대상 월령에 맞지 않는 경우,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요 연구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신념 및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

육효능감에 미치는 영아 및 어머니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및 주요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연구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본 연구대상 영아의 기질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유아의 기질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이며, 기질의 하위

<표 2> 영아의 기질의 일반적인 경향 (N=260)

하위요인	범위	M(SD)
사회성	1.70~4.60	3.37(.49)
활동성	2.00~5.00	3.83(.60)

요인 가운데 사회성의 평균은 3.37(SD=.49), 활동성의 평균은 3.83(SD=.60)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발달수준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3>과 같으며, 15~18개월, 19~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용 발달 검사지가 다르므로, 월령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5~18개월 영아의 전체적인 발달수준은 140~380점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평균 282.61(SD=63.10)이었다. 발달영역별 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대근육 운동기술 52.83(SD=9.63), 소근육 운동기술 42.17(SD=11.95), 의사소통 35.87(SD=18.13), 사회정서 61.74(SD=8.06), 인지 40.87(SD=21.51) 기본생활 49.13(SD=9.00)이었다. 19~24개월 영아의 전체적인 발달

<표 3> 영아의 발달수준의 일반적인 경향

(N=260)

발달영역	월령	15~18개월 (N=23)		19~24개월 (N=50)		25~30개월 (N=82)		31~36개월 (N=105)	
		범위	M(SD)	범위	M(SD)	범위	M(SD)	범위	M(SD)
대근육 운동기술		20~60	52.83 (9.63)	20~80	66.00 (15.81)	15~80	56.89 (17.30)	10~60	48.29 (11.91)
소근육 운동기술		20~60	42.17 (11.95)	20~70	49.50 (14.61)	0~65	42.62 (14.87)	10~70	54.90 (14.21)
의사소통		0~60	35.87 (18.13)	0~80	49.20 (26.39)	5~110	77.62 (26.99)	20~160	124.67 (33.07)
사회정서		40~70	61.74 (8.06)	15~60	47.60 (10.84)	15~60	46.89 (10.29)	25~70	56.33 (10.68)
인지		5~70	40.87 (21.51)	10~70	50.10 (15.20)	0~90	59.21 (23.17)	10~90	69.24 (19.30)
기본생활		25~60	49.13 (9.00)	10~85	57.30 (20.28)	15~90	51.95 (11.43)	10~60	44.76 (10.99)
전체		140~380	282.61 (63.10)	110~430	319.70 (78.46)	50~455	335.18 (82.58)	110~505	398.19 (79.43)

수준은 110~430점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평균 319.70(*SD*=78.46)이었다. 발달영역별 평균은 대근육 운동기술 66.00(*SD*=15.81), 소근육 운동기술 49.50(*SD*=14.61), 의사소통 49.20(*SD*=26.39), 사회정서 47.60(*SD*=10.84), 인지 50.10(*SD*=15.20), 기본생활 57.30(*SD*=20.28)으로 나타났다.

25~30개월 영아의 경우 전체적인 발달수준은 50~455점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평균 335.18(*SD*=82.58)이었다. 발달영역별 평균은 대근육 운동기술 56.89(*SD*=17.30), 소근육 운동기술 42.62(*SD*=14.87), 의사소통 77.62(*SD*=26.99), 사회정서 46.89(*SD*=10.29), 인지 59.21(*SD*=23.17), 기본생활 51.95(*SD*=11.43)였다. 31~36개월 영아의 전체적인 발달수준은 110-505점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398.19(*SD*=79.43)로 나타났다. 발달영역별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근육 운동기술 48.29(*SD*=11.91), 소근육 운동기술 54.90(*SD*=14.21), 의사소통 124.67(*SD*=33.07), 사회정서 56.33(*SD*=10.68), 인지 69.24(*SD*=19.30), 기본

생활 44.76(*SD*=10.99)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2점에서 28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은 21.91(*SD*=2.76)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과 인지발달에 관한 지식은 각각 8점이 최고점이며,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은 5점, 사회성발달에 관한 지식은 10점이 최고점이다.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 6.91(*SD*=1.08), 인지발달에 관한 지식 6.27(*SD*=1.11),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 3.87(*SD*=.87), 사회성발달에 관한 지식 4.87(*SD*=1.6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1점에서 7점까지의 가능한 점수 범위 가운데 인성/학습성취 강조 신념의 평균은 2.52(*SD*=.83)로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신념은 인성성취 강조 신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환경주의 신념의 평균은 4.17(*SD*=.85)이었다.

<표 4>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N*=260)

변인	하위요인	범위	<i>M</i> (<i>SD</i>)
어머니의 양육지식	정서발달	3~8	6.91(1.08)
	인지발달	3~8	6.27(1.11)
	신체발달	1~5	3.87(.87)
	사회성발달	1~9	4.87(1.65)
	전체	12~28	21.91(2.76)
어머니의 양육신념	인성/학습성취 강조 신념	1~4.83	2.52(.83)
	성숙/환경주의 신념	1.56~6.33	4.17(.8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1.25~4.42	2.67(.64)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00~3.75	1.74(.59)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08~4.08	2.18(.59)
	전체	1.17~4.06	2.20(.5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2.62~5.00	4.07(.47)
	교육	2.00~5.00	3.62(.55)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2.56~5.00	4.02(.49)
	발달지원	1.67~5.00	3.77(.52)
	전체	2.69~5.00	3.91(.4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전체적으로 1점에서 5점까지의 가능한 점수 범위 가운데 평균 2.20($SD=.50$)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고통이 2.67($SD=.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2.18($SD=.59$),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74($SD=.59$) 순으로 스트레스를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1점에서 5점까지의 가능한 점수 범위 가운데, 전체 평균 3.91($SD=.43$)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효능감의 평균이 4.07($SD=.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4.02($SD=.49$), 발달지원 3.77($SD=.52$), 교육 3.62($SD=.55$) 순으로 나타났다.

2. 영아 및 어머니의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신념 및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영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아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효능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r=.16, p<.05$), 영아의 출생순위가 첫째 또는 외동인 경우에 비해 둘째, 셋째일수록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또는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양육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영아의 기질과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아의 사회성 기질과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능력($r=.31, p<.001$), 교

육($r=.25, p<.001$),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r=.23, p<.001$), 발달지원($r=.31, p<.001$) 및 전체 양육효능감($r=.3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영아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활동성 기질도 마찬가지로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능력($r=.22, p<.001$), 교육($r=.15, p<.05$),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r=.26, p<.001$), 발달지원($r=.20, p<.01$) 및 전체 양육효능감($r=.2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영아가 기질적으로 활동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발달수준 중에서는 영아의 인지발달이 어머니의 발달지원에 대한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3, p<.05$). 즉 영아의 인지발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발달에 대한 지식과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가운데 의사소통 능력($r=.13, p<.05$), 발달지원($r=.15, p<.05$) 및 전체 양육효능감($r=.14, p<.05$)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녀의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나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효능감, 전체적인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두 가지 양육신념 하위요인 가운데 인성/지적성취 강조 신념만이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가운데 의사소통 능력($r=.17, p<.01$), 교육($r=.12, p<.05$),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r=.21, p<.01$) 및 전체 양육효능감($r=.18,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녀의 인성을 성취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념을 가진 어머

<표 5> 영아 및 어머니 변인과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N=260)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교육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발달지원	전체
영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¹⁾	-.09	-.07	.00	.00	-.05
	월령	-.06	-.02	-.08	-.07	-.07
	출생순위	.04	.16*	.08	.03	.09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연령	-.04	.04	-.01	-.02	-.01
	어머니 교육수준	.10	.07	.03	.12	.09
	어머니 취업유무 ²⁾	.09	.08	.06	-.02	.07
	가정의 월수입	-.04	-.02	-.01	-.06	-.04
영아의 기질	사회성	.31***	.25***	.23***	.31***	.32***
	활동성	.22***	.15*	.26***	.20**	.24***
영아의 발달수준	대근육 운동기술	-.06	-.01	-.01	.04	-.02
	소근육 운동기술	.04	.07	.05	.11	.07
	의사소통	-.00	.03	-.02	.09	.02
	사회정서	-.02	-.02	-.08	.09	-.02
	인지	.04	-.01	.03	.13*	.05
	기본생활	.08	.06	.07	.06	.08
	전체	.02	.03	.01	.12	.04
양육지식	정서발달	.13*	.10	.09	.15*	.14*
	인지발달	-.03	-.02	-.02	-.00	-.02
	신체발달	-.06	-.01	.04	-.06	-.03
	사회성발달	.01	.02	.04	.11	.05
	전체	.03	.05	.06	.11	.06
양육신념	인성/지적성취 강조 신념	-.17**	-.12*	-.21**	-.12	-.18**
	성숙/환경주의 신념	.07	.07	.10	-.01	.07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31***	-.38***	-.24***	-.25***	-.35***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39***	-.33***	-.42***	-.33***	-.44***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35***	-.40***	-.42***	-.37***	-.45***
	전체	-.42***	-.44***	-.43***	-.38***	-.49***

¹⁾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음(1 : 남, 2 : 여).

²⁾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음(1 : 취업모, 2 : 비취업모).

* $p < .05$ ** $p < .01$ *** $p < .001$

니일수록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능력, 교육하는 능력,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및 전체적인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의 모든 하위요인과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양육스트레스 점수와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 및 전체 양육효능감에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 = -.42, p < .001$; $r = -.44, p < .001$;

$r=-.43, p<.001$; $r=-.38, p<.001$; $r=-.49, p<.001$),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및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영아 관련 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요인과 전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양육효능감과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양육효능감 각 하위요인과 전체 양육효능감 회귀모형의 Durbin-Watson 계수는 1.86~2.02로 2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회귀 현상의 가능성이 낮아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경우, 영아 관련 변인 및 어머니 양육 특성 변인이 양육효능감을 26%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5.07, p<.001$). 각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가운데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beta=-.22, p<.05$), 영아의 사회성 기질($\beta=.18, p<.01$),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부모의 고통($\beta=-.14, p<.05$) 순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경우, 각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25%였다($F=4.96, p<.001$). 교육

관련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가운데 부모의 고통($\beta=-.23, p<.001$),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beta=-.21, p<.05$), 영아의 사회성 기질($\beta=.16, p<.05$)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관련된 양육효능감에 대해서는 각 독립변인이 26%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5.32, p<.001$).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가운데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beta=-.20, p<.05$),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beta=-.18, p<.05$), 영아의 사회성 기질($\beta=.14, p<.05$),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beta=-.12, p<.05$) 순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관련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지원과 관련된 양육효능감에서는 각 독립변인들이 2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F=4.75, p<.001$).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beta=-.22, p<.05$), 영아의 사회성 기질($\beta=.19, p<.05$), 정서 발달에 관한 양육지식($\beta=.12, p<.05$) 순으로 발달지원 관련 양육효능감에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양육효능감에 대한 모든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F=6.97, p<.001$). 전체 양육효능감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가운데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beta=-.18, p<.05$), 영아의 사회성 기질($\beta=.17, p<.05$), 부모의 고통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beta=-.15, p<.05$)의 순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변인

<표 6>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및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260)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교육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발달지원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영아의 기질										
사회성	.18	.18**	.18	.16*	.05	.05	.20	.19**	.15	.17**
활동성	.04	.05	.02	.02	.12	.14*	.04	.05	.05	.08
영아의 발달수준										
대근육 운동기술	-.00	-.14	-.00	-.07	-.00	-.03	-.00	-.06	-.00	-.10
소근육 운동기술	.00	.05	.00	.09	.00	.05	.00	.04	.00	.07
의사소통	.00	.00	.00	.09	-.00	-.05	.00	.03	.00	.02
사회정서	-.00	-.03	-.00	-.04	-.00	-.08	.00	.05	-.00	-.04
인지	-.00	-.01	-.00	-.12	.00	.00	.00	.07	-.00	-.02
기본생활	.00	.11	.00	.05	.00	.10	-.00	-.04	.00	.08
양육지식										
정서발달	.04	.10	.03	.07	.02	.06	.05	.12*	.03	.10
인지발달	-.01	-.03	-.01	-.02	-.02	-.06	-.00	-.02	-.01	-.04
신체발달	-.03	-.08	-.01	-.02	.00	.01	-.02	-.05	-.02	-.04
사회성발달	.00	.00	.00	.03	.00	.01	.02	.07	.00	.02
양육신념										
인성/지적성취 강조 신념	-.04	-.09	-.01	-.02	-.07	-.12*	-.00	-.01	-.03	-.08
성숙/환경주의 신념	-.00	-.00	.00	.02	.02	.04	-.03	-.05	.00	.00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10	-.14*	-.20	-.23***	-.01	-.02	-.08	-.11	-.09	-.15*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8	-.22*	-.01	-.02	-.15	-.18*	-.03	-.05	-.11	-.15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03	-.04	-.20	-.21*	-.17	-.20*	-.19	-.22*	-.13	-.18*
<i>R</i> ²	.26		.25		.26		.24		.32	
<i>F</i>	5.07***		4.96***		5.32***		4.75***		6.97***	

p*<.05 *p*<.01 ****p*<.001

으로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영아 관련 변인과 어머니 관련 변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출생

순위가 첫째나 외동아인 경우에 비해 둘째나 셋째 이상일수록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문혁준, 2005; Gross, Rocissano, & Roncoli, 1989)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전 양육경험이 있을 경우, 특히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다른 영아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을 경우 영아의 요구나 행동, 발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Coleman & Karraker, 2000).

둘째, 영아의 사회성 및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 교육,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발달지원과 관련된 양육효능감 및 전체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이 높을 경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이 높으므로 또래관계 등 새로운 사회관계가 시작되는 만 2세 전후의 영아기에 적응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활동성 기질의 경우에는 활동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활동에 방해를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며, 쉽게 지루해 하기 때문에 부모의 훈육 행동이 더 요구될 것으로 가정될 수도 있으나, 이 시기의 활동성은 부모에게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긍정적인 행동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Coleman & Karraker, 2000). 한편, 영아의 발달영역 가운데 인지발달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지원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지발달이 높은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능력에 더 자신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 중에서는 정서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능력, 발달지원에 관한 효능감 및 전체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지식의 여러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이 양육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 선행연구(송연숙·김영주, 2008; 이영환·오미연,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자녀의 신뢰감, 친밀감, 독립성, 애착관계 등에 관한 정서발달 지식이 풍부하면,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자녀의 상태에 적

합한 방법으로 발달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영역의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신념의 경우,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을 지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대체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양육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약 어머니가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송연숙·김영주, 2007). 이는 요즘 특히 어린 영아기부터 학습 위주의 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이 영아의 발달적 결과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스트레스는 모든 하위요인이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일수록 양육효능감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울감을 느끼고,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불일치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받는 스트레스, 다루기 어려운 자녀의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아 및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요인마다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효능감에는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영아의 사회성 기질, 부모역할에 대한 고통과 관련된 스트레스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교육과 관련된 효능감에는 부모역할로 인한 고통,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영아의 사회성 기질의 순으로 설명력이 있었으며,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관련된 효능감에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활동성 기질, 인성/지적성취 강조 신념의 순으로 설명력이 있었다. 한편, 발달지원과 관련된 효능감에서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영아의 사회성, 정서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의 순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전체 양육효능감에서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영아의 사회성,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고통 순으로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의 기질의 경우, 사회성은 의사소통 능력, 교육, 발달지원에 대한 효능감을 설명하는 반면, 활동성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설명하였다. 즉 영아가 활동적일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보다 자신감이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지식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대한 지식이 높을 경우 발달지원에 대한 효능감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민감해야 효율적일 수 있음을 입증해주는 결과이다. 양육신념의 경우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할수록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심신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머니의 영향력을 발휘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양육효능감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부모로서의 고통이 많을수록 자녀와 의사소통하거나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낮다는 결과를 통해 부모로서의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것이 부모-자녀관계를 개선하고, 영아를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역기능적으로 인식하는 부모들의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부모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효능감은 신념의 특성을 지니므로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Gross, Conrad, Fogg와 Wothke(1994)에 따르면 자녀가 12개월에서 36개월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지속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들은 양육효능감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Gross, Fogg, & Tucker, 1995; Tucker, Gross, Delaney, & Lapporte, 1998). 이는 양육효능감이 외부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가 양육신념을 재정비하고, 양육지식을 습득하며, 양육스트레스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과 같은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표집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와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기관보육 영아의 어머니와 가정양육 영아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영아의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역할을 하며, 최근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한 연구들이 소수 있지만, 각각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부모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실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걸음마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양육효능감의 선행요인을 밝히고자 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부모의 한 두 가지 양육 특성만을 포함시키거나, 특히 영아기 자녀의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관련성을 다룬 국내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에서,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등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

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문혁준(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 : 자녀양육행동 매개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송연숙 · 김영주(2007). 양육신념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연구. **아동교육**, 16(4), 107-117.
 송연숙 · 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윤형주(2002).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정하(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영환 · 오미연(2006).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9(3), 47-62.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장혜성 · 서소정 · 하지영(2007). 장애 위험군에 처한 영아 조기선별 교육진단도구의 국내 타당화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2007년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pp.283-304).
 장혜성 · 서소정 · 하지영(2008). **영아선별 · 교육진단 검사**. 서울 : 학지사.
 전수연(2002). 아동 기질과 부모 양육 형태에 따른 행동발달의 차이 : 발달적 맥락에 따른 '조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전인옥 · 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

- 과모형 탐색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Abidin, R. R. (1983). *Parenting Stress Index (Form 6)*.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iatric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e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29-735.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ide, N. 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predictors. *Family Relations*, 42, 13-24.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 (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23-140.
- Conrad, B., Gross, D., Fogg, L., & Ruchala, P. (1992). Maternal confidence, knowledge, and quality of mother-toddler interactions : A preliminary stud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3(4), 353-362.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e Montigny, F., & Lacharité, C. (2005). Perceived parental efficacy :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4), 387-396.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7, 207-215.
- Gross, D., Fogg, L., & Tucker, S. (1995). The efficacy of parent training for promoting positive parent-toddler relationship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8, 489-499.
- Gross, D., & Rocissano, L. (1988). Maternal confidence in toddlerhood : Its measurement for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urse Practitioner*, 13, 19-29.
- Gross, D., Rocissano, L., & Roncoli, M. (1989). Maternal confidence during toddlerhood : Comparison of preterm and fullterm group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2, 1-9.
- Larsen, J. J., & Juhasz, A. J. (1986).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1(81), 39-54.
- Mash, E. J., & Johnst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Segal, M. (1985). A study of maternal beliefs and values within the context of an intervention program.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271-286).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wick, K. J., & Hassell, T. (1990). Parental efficacy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17(1), 24-32.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Tucker, S., Gross, D., Fogg, L., Delaney, K., &Laporte, R. (1998). The long-term efficacy of

a behavioral parent training intervention for families with 2-year-old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1, 199-210.

2009년 10월 31일 투고, 2009년 12월 24일 수정
2010년 1월 18일 채택